

社說

5·18진상조사위 청문회 준비에 만전 기해야

5·18진상조사위원회가 3주년을 맞았다. 내년 상반기에는 발표 경위와 책임, 중대 인권 침해사건, 민간인 집단 학살, 가(암)매장 실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1988년 제5공화국 비리 관련 국회 청문회가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됐다. 최고 시청률 81%를 기록하는 등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발표명령자 규명 등 실제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이번 청문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2019년 12월26일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모두 2천100명의 계엄군을 직접 면담해 500권이 넘는 진술서와 녹취록을, 또 3천명에 달하는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목격자 등을 조사해 1천500여명의 증언을 확보했다. 아울러 5·18 당시 행정부와 계엄사령부, 전두환 내란집단, 광주에 투입된 3·7·11공수 여단, 20사단, 전두교육사령부 등 고위 지휘부 82명 가운데 현재까지 44명의 진술 조사를 완료했다.

특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 중이며, 피해자의 신청에 의

한 216건의 신청사건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직권조사는 계엄군에 의한 발표 경위와 책임소재 및 행거사적, 민간인 사망과 상해 및 성폭력, 집단학살, 행방불명 및 압매장의혹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사건의 은폐, 왜곡, 조작, 그리고 진압작전에 참여한 군과 경찰의 피해 등을 망라한다. 내년 3월까지 모든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체 평가로 조사목표 대비 70%를 달성한 상황에서 청문회로 시선이 쏠리게 됐다. 역사정의의 바로 세우는 진실 규명에 한발 더 다가갈 것으로 주목되는 것이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허무하게 세상을 등졌으니 남은 핵심 관계자들의 참회와 고백을 재차 촉구하는 바다. 인정되는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상당한 불이익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두르기 보단 차분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위원회는 2023년 12월26일 종료 뒤 6개월 동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가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국민과 한 약속, 1년 남았다. 광주의 바람대로 잘 마쳤으면 한다.

정부 예타 대상 선정된 새 전남대병원 건립

오랜 숙원인 새 전남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두 번째 도전만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 의료시스템이 구축되는 '미래형 뉴스마트병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병원은 1천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천675평)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34년까지 11년간 1조2천150억원(국고 3천40억, 자부담 9천110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1단계(동관 건물)로 2030년까지 의과대학 학동 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700병상 신축 건물을 완공한 후 기존 1동·3동과 어린이병원(6동)·부속동(2동)의 진료기능을 이전한다. 의대는 화순전남대병원으로, 간호대학은 전남대로 옮긴다. 2단계 서관 건물은 1·2·3·5·6동과 제1주차장 철거 뒤 해당 부지에 600병상 규모 병원을 신축한다. 8동의 권역의 상센터와 응급센터 등의 진료기능을 이전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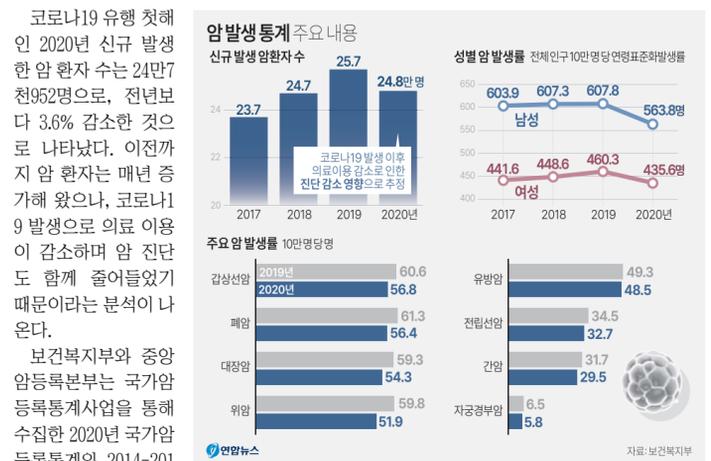
진행한 사전타당성 분석에 서 정부 공공의료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시행 정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 등과 부합되고 B/C역시 2.15로 나타났지만 지난 8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이제 내년부터 예타 조사가 시작되며 앞으로 할 일이 적지 않다. 첫 발을 내디뎠을 뿐 이어서다. 광주시, 정치권 등이 계속해 힘을 보태야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과업이다. 단순히 병원 신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극히 상황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때마침 조선대학교병원도 2028년까지 6천억원을 들여 3만㎡ 부지에 1천병상의 새 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이다. 전남대·조선대병원 모두 예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그래픽 뉴스

매년 늘던 암 환자 코로나 탓에 감소... "진단검사 줄어"



금석위개(金石爲開), 그 절실한 다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심리가 드러나 있다. 미국에서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었다. 2022년 한 해 미국에서 예년 대비 무려 1,740%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이 '오정보' '가짜 뉴스' '음모이론' '딥 페이크' 등 현대 수많은 미디어 채널과 테크놀러지의 홍수 속에서 느끼는 혼란감을 조작적 세뇌와 정서적 학대를 의미하는 가스라이팅이란 단어와 연관시킨 것이라고 매리엄-웹스터 측은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올해의 한자로 '운(穩)'과 '전(戰)'자가 선정됐다. 중국 매체 '핑파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언어자원모니터링·연구센터와 상무인서관, 관영 매체 광명망 등은 오늘 온라인으로 개최한 '중국어 총결산 2022'에서 올해를 대표하는 '운(안정) 자와 국제를 대표하는 '전(전쟁) 자를 각각 선정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과 위기를 겪은 올해는 부정적이며 격정스러운 단어들인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이 위기가 지속된다면 큰일이다.

우리 내년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이끌어 '희망'이란 단어가 2023년 결산에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때문인지 중소기업계의 사자성어는 '금석위개(金石爲開)'다. 정성이 쇠와 금을 뚫는다는

뜻으로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자성어로 풀어 본 중소기업 경영 환경 전망조사'에서 응답자의 26.2%가 '금석위개'를 2023년의 사자성어로 선택했다고 한다. 절실한 바람이자 다짐인 것 같다.

우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중소기업인들은 더 고통이 심했을 것이다. 기업인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살얼음을 밟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험함을 뜻하는 '여리박빙'을 선정할 정도다.

여리박빙을 넘어 금석위개를 염원하는 중소기업인들의 기원처럼 내년은 서러움과 갈등, 위기와 불안, 고통과 아픔이 줄어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정치권은 갈등과 반목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하는 새해이길 바란다.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파도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안정회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사회는 큰 사고 없이 각 분야가 모두 안정하기를 염원한다. 정치가 제발 경제·사회·문화의 발목을 잡지 말고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한국사회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기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잘 가라 2022년!

남성숙 칼럼



본사 부회장

한해가 저문다. 2022년 올해는 살얼음 밟듯 위험한 '여리박빙(如履薄氷)'의 해였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괴이불개(過而不改)'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힌바 있다.

괴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하며 공자는 '괴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잘못하고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나온다.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 실록에 적혀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그 결과 세종 재위 기간 안전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도자의 잘못이 만 천하에 드러도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

지도 않고 되레 진노한다면 그 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

괴이불개 이외에도 '달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개미창'(慾蓋彌彰) (2위·14.7%),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의 '누란지위'(累卵之危) (3위·13.8%),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문과수비'(文過遂非) (4위·13.3%),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하다'는 '군맹무상'(群盲撫象) (5위·7.4%)이 교수들이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됐다 하니, 올 한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두컴컴 했는지 알만하다.

영미권에서 출판되는 세계적 권위의 영어 사전들, 옥스포드 잉글리시 디క్ష너리, 콜린스 잉글리시 디క్ష너리, 케임브리지 잉글리시 디క్ష너리 등 매년 연말 한 해를 마감하며 그 해 가장 많이 대중매체에 오르내린 유행어, 즉 '올해의 단어'를 발표한다. 콜린스 영어 사전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단어'는 '퍼마크라이시스(Permacrisis)'였다. 한 가지 위기가 지나가면 다른 위기가 오는 끊이지 않는 영원한 불안정과 위기 상태를 뜻한다. 경제 분위기가 올 한해 저물어가는 지금까지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영어사전 사이트들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들은 대중의 좌불안석 불안감, 현재에 대한 불안족,

기고



정영수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겸임교수 경영학 박사

부동산 고수(高手)와 하수(下手)

가지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는 위기 관리능력이다. 위기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해 시각의 차이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고수는 유료상담 코너에서 여론이나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지만 하수는 무료상담에 목을 맨다. 무료로 상담 등에 자문을 해 주면서 책임을 저지는 상담자가 얼마나 될까? 몇억짜리 집을 사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해보고 짧은 경험과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결정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몇 번의 성공 경험을 교훈 삼아 방심하다가 심하게 물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오만과 방자함이 사라져 어떤 분은 종교계로 들어가 독실한 신자가 되기도 한다.

부동산투자의 하수는 잘 되면 자기 탓, 안되면 환경과 여건을 탓한다. 세상에 힘들지 않고 날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하수일수록 무료조언을 좋아하는데 평생 어렵게 고생하며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그냥 알러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고수일수록 각계 전문가 집단과 연계가 많으며 그만큼 비용도 많이 치른다.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는 각 분야 정보력을 가진 정치인 등 많은 사람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작업하는데 책 몇 톨 읽은 사람과 똑같은 정보를 얻는다면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을까?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하수들이 법원경매에 처음 입찰해 보기 좋게 성공한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 낙찰한 물건으로 고생도 하고 구입하여 어려움을 경험해야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다.

하수는 실수가능성 그 자체를 부정하고 원망하는 반면, 고수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리스크를 줄여 나간다고 한다. 하수들은 부동산경매 관리분석 등 간단한 것을 좋은 물건이라고 여기지만 고수는 골치 아프지만 수익률이 높은 물건을 고른다. 하수들은 임차인이 많거나 유치권 신청이 되어 있는 등 복잡한 문구를 보면 얼른 넘어가지만 고수들은 이런 물건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투자한다고 한다. 부동산에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고수들은 미래가치를 생각하지만 하수들은 현재 가격만 생각하고 고수는 팔기 좋은 물건을 선택하지만 하수는 살기 좋은 물건을

독자투고

육내소화전 사용요령 알아보기

육내소화전을 아시나요? 건물 안에서 누구나 쉽게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네모 형태에 '소화전'이라고 적혀 있는 그것이 바로 육내소화전이다. 육내소화전은 건물 내에 설치돼 화재 시 직접 조작해 소화하는 수계소화 설비이다. 하지만 육내소화전을 많이 보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눈에 익어 친숙하지만 어색한 육내소화전 사용요령을 알아보자.

육내소화전은 건물 내에 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소방용수를 쓸 수 있도록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 시설이다. 또한, 우리가 터널

등을 이용할 때도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육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육내소화전은 가 능하면 두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쉽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건물이나 터널 내에서 육내소화전을 사용할 상황이 생기면 일단 소화전 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했음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2인 1조(1인도 가능)로 소화전 함의 문짝 손잡이를 당겨 개방한다. 한 사람은 소화전 함의 노즐과 호스를 꺼내 불이 난 곳으로 향해 끌고간다. 다른 사람은 호스가 접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퍼주고, 노즐을 가져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 소화전 함의 개폐 밸브를 왼쪽(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개방해야 한다. 단, 기동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ON(적색) 스위치를 누른 후 밸브를 열도록 한다. 호스에 물이 차오르면 노즐을 잡고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향해 노즐을 돌려서 물을 방사하면 된다. 화재전압이 완료되면 소화전의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잠근 후 호스를 잘 말리고 정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육내소화전 사용법이 육내소화전 함에 스티커로 부착돼 있으니 긴급한 상황에서 생각이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3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정부 650-2090	사건진보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